

남원시 '빈집 활용 창업'으로 구도심 살린다

동충동·죽향동·금동 일대 최대 3000만원 지원·컨설팅 3월까지 접수... 28일 설명회

남원시가 빈집과 빈점포를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구도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잡기'에 나서 주목된다. 남원시는 지역 빈집과 빈점포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창업을 유도하

는 사업 참가자를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시가 올해 시행하는 빈집·빈점포를 활용한 창업지원 사업은 '도시재생 사랑나눔(마을카페·공방)' 사업으로 장기 침체에 있는 지역 경기에 주민 참여로 활력을 불어넣고 소득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복안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향후 3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총 5억 원이 나누어 지원된다. 공모 대상지역은 동충동과 죽향동, 금동(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일대로 3인 이상 주민으로 이루어진 팀이면 누구나 신

청이 가능하다. 신청 가능한 업종은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모든 소득사업으로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팀에게 최대 3000만 원의 공간 리모델링 공사비와 임대료(자부담 10% 필수), 임대료 인상 억제 유도를 위한 건물주와 임차인간의 상생협약, 창업을 위한 컨설팅과 홍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사업에 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28일 오후 6시 30분 남원문화원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

한다. 사업 신청서는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고 신청은 3월 말까지 가능하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4월 말 최종 지원팀(8개팀)을 확정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주민 일자리 창출과 근린상권 재생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0년까지 매년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성기 기자 bs8787@

잃어버린 조상 땅 찾기 남원시가 도와드립니다

남원시는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도울 수 주기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할 경우 민법상 사망자의 재산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토지소유 현황을 제공하는 것이다. 토지소유자 본인은 신분증,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되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하면 된다. 남원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토지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문의 063-620-6123. /남원=백성기 기자 bs8787@



취나물 밭상으로 봄맞이 할까 25일 남원시 대산면 대곡마을에서 조영훈(69·오른쪽)씨 부부가 비닐하우스에서 친환경으로 재배한 취나물을 수확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익산시, GM공장 폐쇄 철회 건의문 채택 협력업체 등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익산시가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 촉구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지난 23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익산시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익산시와 GM 군산공장 익산지역 1·2차 협력업체, 익산고용노동지청, 익산상공회의소, 익산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등이 참석했다. 시와 GM 협력업체, 유관기관들은 이날 군산공장 폐쇄결정 철회와 고용재난지역 확대 건의문 채택, 고용재난지역 지정 촉구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특히 GM 군산공장 협력업체들은 금융·고용 분야의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고용보호료, 징수금 체납 유예 등을 요청했다. 시와 유관기관은 GM 군산공장 폐쇄결정 철회와 고용재난지역 확대 건의문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기로 의결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한국GM 군산공장 정상기동 촉구를 통해 익산시 소재 협력업체들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고창군, 지역 특성 맞는 청년유입 정책 개발

호남통계청과 청년통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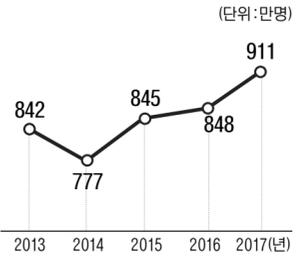
고창군이 청년층 유입을 통한 지역발전 모색을 위해 맞춤형 정책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23일 호남지방통계청과 협약을 맺고 지역통계 개발과 활성화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이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통계 개발을 지원하고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위한 지역통계를 함께 생산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통합적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10여개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수집하는 방침이다. /고창=백형진 기자 phi@

이를 통해 고창군 전 연령층과 청년층의 인구학·사회학·경제학적 현황을 심층 비교 분석하는 '고창군 청년통계'를 오는 10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의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 기본소득 제정과 기본계획을 수립해 청년이 돌아오고 정착할 수 있는 고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호남지방통계청과 업무협약을 통해 고창군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지역통계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상생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통계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군정 정책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형진 기자 phi@

전남 연안 여객선 1000만 이용객 기대

지난해 사상 첫 900만 돌파 ■전남 연안 여객선 수송실적 추이

지난해 전남지역 연안 여객선 이용객이 사상 처음으로 900만명을 돌파했다. 올해는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연안 여객선 이용객은 2011년 745만명, 2012년 758만명, 2013년 842만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777만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2015년 845만명, 2016년 848만명으로 회복한 이용객 수는 지난해 911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이용객 수는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해 5월과 10월 긴 연휴, 큰 태풍 없는 안정적 기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여객선 안전 관리 강화와 전남 브랜드 시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등도 여객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용객 증가를 이끄는 데 한 몫했다고 전남도는 평가했다. 전남도는 올해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이용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1000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공사를 시작해 최근 공사를 마치고 운영에 들어간 완도항 여객선 터미널의 연간 이용객(지난해 121만명)과 가고 싶은 섬 사업지 12곳의 방문객 증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양근서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여객선 이용객이 1000만명을 넘어선다면 그만큼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준공예정 확대 정책에 맞춰 여객선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 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농가소득 높이는 '버섯 전문가' 도전하세요

전남도가 버섯 재배 전문가를 육성한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국내 버섯종균산업 활성화를 위해 버섯 재배 전문가를 육성하고 버섯종균기능사 자격 취득에 도움을 주는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버섯종균기능사는 버섯 생리 연구부터 재배기술에 이르는 전반 기술을 평가하는 자격증이다. 버섯종균 생산·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증이 필요하다. 특히 앞으로 표고 재배 농가 증가 및 배지 수입 규제에 따라 자격증 취득 수요는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해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 12명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이 중 8명이 기능사 자격 시험에 합격해 70%

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연구소는 올해 교육생 전원 합격률 목표로 다음달 2일부터 9일까지 버섯종균기능사 전문교육반을 운영한다. 조직·포자 분리 실험, 소독약·배지 조제 실습, 고압멸균기 등 장비 사용 요령, 우량종균 구분법, 톱밥배지 조제법, 배지 원료 구분 등 실기시험을 대비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한다. 연구소는 또 지역 버섯 재배 농가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재배기술을 높이기 위해 '녹색산림 버섯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6년간 16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올해도 3월부터 2개월간 교육을 추진한다. 문의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 061-338-4242. /백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도, 드론으로 저수지 안전 진단

전남도가 드론을 띄워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 진단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남지역 농업용 저수지 3206곳 가운데 시설물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A·B등급은 시설물 관리주체인 시·군과 농어촌공사가 자체 진단하고, C·D등급으로 분류된 노후 저수지는 전남도와 시·군,

농어촌공사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 기간은 다음달 말까지이다. 특히 시군별로 2곳씩 44개소를 선정해 전남도와 농어촌공사가 드론 등 점검장비를 활용해 저수지 제방, 물넘이, 취수시설 등의 결함 및 노후화 등 상태를 점검한다. /백정욱 기자 jwpark@

덕남동 -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4100평 공유지분
-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장/단기 투자가치 최고
- 매매 - 20만원 (평당)
- 문의. 010-3605-50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판선·전원주택지

- 장성 북이면 장성면 11953㎡(3615평) 매도 6억4천
- 완도 악산면 득암리 바다집 2481㎡ 민박집적합 분할가 2억4천
- 장성 북이면 백양봉개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주택·원룸·아파트

- 월산동 2층 상가주택 땅 106㎡ 건평 117㎡ 1억6천
- 월산동 소방도로근처 2층 상가주택 땅 93㎡ 집 94㎡ 1억2300
- 북구 운암동 한국아파트 165㎡ 전양층을 13층 2억5천
- 월산동 소방도 대지 146㎡ 북충형주택 76㎡ 생활편리 1억6천5백
- 월산동 우체국부근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294㎡ 주택2동 2억3천

투자·매도·교환

- 제주도 서귀포시 별장 땅110여평 건물3층 65평형 엘리베이터 10억2천
- 월산동 무진중부근 원룸적합 379㎡ 소방도 접 4억천
- 충성로 5가 도로접 상업지 490㎡ 상가적합 7억4천
-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833㎡ 창고등 적합 1억5백만원
- 월산동 월산아파트옆 664㎡ 주택·사찰 적합 4억6천
- 담양군 창평 의항리 9544㎡ 공장·창고 적합 평당 40만원

상가건물

- 순천만 판선 땅 332㎡ 2층건물 285㎡ 객실8 은행 3억포함 6억7천
- 충진로4가 요지 대지 261㎡ 건평 1128㎡ 은행15억 보증금 3억5천매23억7천
- 충진로5가 버스도로 대지 265㎡ 건평 1001㎡ 10억5천
- 양동 모텔·커피숍·노래방 대지 577㎡ 건평 1164㎡ 12억5천
- 월산동 버스도로 대지 155㎡ 4층건물 263㎡ 임대 생활적합 3억7천
- 유동 삼성병원부근 대지 598㎡ 건평 334㎡ 식당등 다용도 9억2천
- 월산동 농성초교 건너편 대지 132㎡ 미트와 주택(3층) 189㎡ 4억6천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급매

- 무안군 삼향면 맥포리 답 2002㎡ 차량진입 은행 3700 매도 3500
- 장성 북이면 수성리 전 2136㎡ 창고 등 적합 4500만원
- 신안군 압해읍 북동리 전원주택등 적합 3206㎡ 4600만원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주택

- 치평동 5층 건물(보증금 1.7억 월980만) 매 25억원
- 금호동 7층 건물(보증금 5.4억 월1,300만) 매 32억원
- 용문동 4층 건물(보증금 1억 월745만) 매 17.5억원
- 하남동 4층 건물(보증금 6.2억 월2,200만) 매 53억원
- 산정동 2층 건물(보증금 2억 월1,100만) 매 27억원
- 월곡동 5층 건물(보증금 4억 월 540만) 매 25억
- 쌍암동 5층 건물(보증금 3억 월 1,580만) 매 43억
- 송정동 물류창고 대1,000㎡, 건 500㎡ 매 24억
- 나주시 성북동 1층상가 대 489㎡ 건 322㎡ 매 7억2천
- 양산동 원룸 대 300㎡ 매 7억8천(보안, 월4백만, 안진)
- 오선동(진곡산단) 대 785㎡ 건 600㎡ 매 21억(보2억, 월900만)

토지

- 서구 서창동 대지 2중주거지역 1,760㎡ 매 13억6천
- 광산구 남산동 대지 1중주거지역 421㎡ 매1억5백만
- 임암동 효천1지구 근생용지 320㎡ 매 10억5천
- 광산구 소촌동 자연녹지 3,800㎡ 매 27억(공업사 물류창고 적합)
- 광산구 비아동 자연녹지 6,130㎡ 매 37억(공업사 물류창고 적합)
- 광산구 우산동 상업지역 코너자리 대지 612㎡ 매 12억
- 광산구 운남동 생산녹지 3,000㎡ 매 13억2천(물류창고 아적합 적합)
-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답 3426㎡ 4억2천(모텔허가 특)
- 남평읍 상곡리 전.임야 9,240㎡ 매 8억4천(전원주택부지 적합)
- 도곡면 원화리 계획관리지역 내대지 5,355㎡ 매 33억(요양병원적합)
- 담양군 대전면 성산리 1중주거지역 전 1,637㎡ 4억6천(창고적합)
-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계획관리지역 전 5,000㎡ 매 8억5천
- 금천면 석전리 계획관리지역 대지, 답 2,240㎡ 매 4억6천
- 점음시 신정동 전 3,300㎡ 매 5억원 (전원주택, 가든식당 적합)
- 고흥군 송림리 전 17,000㎡(약 5천평) 매 3.3㎡당 2십2만원 (토목공사완료, 버섯가토지, 남동향, 펜션, 카라만, 전원주택, 태양광적합)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6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너지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향구독 (062) 220-0550